

종교교육학연구 제12권. pp.347-373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천도교 교육론 연구

정 혜 정
(동국대 강사)

〈요약〉

천도교의 교육론은 동학사상을 계승하여 일제 식민지하에서 조선독립과 결합하여 실천적으로 전개되었다. 김형준은 현대철학의 유물론과 유심론, 및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를 극복하고자 했고, 딜타이의 상대주의 입장에 동조하면서도 수운사상으로 비판하여 천도교의 핵심사상을 뚜렷이 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인간을 객관적 존재로, 혹은 주관적 존재로만 파악하여온 태도는 극복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은 한울我의 존재로서 한울(전체)과 합하는 보편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창조활동을 하는 것이 인간 삶의 의미요 교육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김기전은 인간형성의 교육을 건축에 비유하여 인간이 자신의 설계도에 따라 자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역사비판과 人乃天에 따른 일상행위에서의 몰입할 것을 말했다. 인내천에 있어 인간이 한울이라는 것은 전체와 부분이 통일됨을 말한다. 이러한 천도교 교육이론으로부터 5가지 현대교육의 방향이 제시될 수 있는데, 이는 곧 인간성-무궁의 인간관에 기초한 교육이념에서 도출된 것으로 ① 생명공동체 교육 ② 민족, 역사, 문화의 서사적 사회화 교육 ③ 역사비판과 주체화교육 ④ 자기준적(自己準的) 확립의 교육 ⑤ 홍익인간의 동귀일체 교육으로 집약할 수 있다.

핵심주제어: 인내천, 인간건축, 생명공동체, 서사교육, 자기준적

《Abstract》

The study of educational theory in Chondokyo

Jung, Hey-Jung

(The lecturer of Dongguk University)

The educational theory of Chondokyo which succeeded to Tonghak was stated practically in the colonial period with the independence movement. Kim, hyung-Jun want to over come materialism and spiritualism, objectivism and subjectivism of modern philosophy. And he want to clarify the Chondokyo's thought at that time he was not complied but also criticized the relativism of Dhillthy. He nagated not only the view of human as objective existence but also as subjective existence. Human is Self of God and persues to uniting God. This is meaning of life and of education. Also Kim, Ki-Jeon represented by metaphor that constitution of human being is under architecture. That is to say, human oneself makes the own blueprint and criticize the present history for the sake of formation of it. Human make himself with being absorbed in Inneachonism(人乃天). In Inneachonism "man is God" means the unity of whole and section. From the theory of Chondokyo's education we can have the view of five education. They are ①the education of life community, ②the narrative education of socialization in national, history, culture, and ③the education of critisizing history and of subjecthood, ④the education of establishing one's own standard, ⑤the education of universal community.

Key words: Inneachonism, constitution of human being as architecture, life community, narrative education, one's own standard

I. 들어가는 말

천도교의 교육론은 맹목적인 서구교육이론의 이식과는 달리 한국 전통의 사유체계를 계승하고 근대시기에 있어 현대사상을 비판·수용하였다. 이는 오늘날도 보기 힘든 깊이 있는 교육론을 제시하고 있기에 이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920-30년대 대표적인 천도교 교육이론가로는 이돈화, 김기전, 김형준, 그리고 방정환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김형준과 김기전을 중심으로 천도교 교육론이

지향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학·천도교 자체가 인내천의 인간관에 기초하여 역사주체적 인간상을 지향하였고 불교적 본체관에 터하여 우주통전의 세계관을 보여 주고 있기에 천도교 교육론은 근대와 탈근대적 한계를 동시에 넘어서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I. 김형준의 현대사상비판과 ‘한울我’의 인간관

김형준¹⁾은 현대철학의 유물론과 유심론,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를 극복하고자 했고, 딜타이의 상대주의 입장에 동조하면서도 이 역시 수운사상으로 비판하여 천도교의 핵심 사상을 뚜렷이 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인간을 객관적 존재로, 혹은 주관적 존재로만 파악하여온 태도는 극복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희랍의 자연철학으로부터 18세기의 기계적 유물론, 19세기의 자연과학적 유물론, 그리고 맑스주의의 유물사관에 의해 발전을 거듭해 온 실증주의철학은 인간을 자연적 존재와 같이 객관적, 물질적 존재로 보아 인간의 진화된 물질적 기계로 보았는데, 이들은 인식에 있어서나 역사적 발전에 있어 인간의 주체적 기능, 즉 능동적 정신을 인정하지 않는다²⁾는 것이 김형준의 비판이다.

또한 관념론의 주장과 같이 인간의 인식에 의한 사유가 객관적 실재를 초월해 있다면 인간의 정신은 객관적 존재를 대항하는 기능을 나타낼 수 없기에 이 역시 극복되어야 할 철학이다. 객관적 존재를 떠난 정신은 객관적 실재를 자의적으로 규정해 봤자 객관적 실재에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물론과 같이 정

1 김형준(1908 ~ 1953)은 천도교 조선농민사 상임이사로 동경 日本大學에서 철학과를 졸업하고 1926년 용천 소작쟁의를 지도했으며 1927년에는 학생독서회 사건으로 검거되었었다. 1931년에는 일본에서 천도교종리원의 청년활동을 지도했고 1932년 천도교 잡지인 《農民》, 《新人間》을 편집했다. 1938- 1939년까지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각종 잡지에 문학과 철학에 관한 글을 발표했다. 1945년 8월 건준에 참여하고 11월 조선인민당 선전부장을 맡았으며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 대회에서는 조선인민당을 대표하여 축사를 했다. 1946년 2월 민전(민족주의민족전선)결성대회에서는 중앙위원 및 사무국 선전부장을 맡았고 5월 《조선인민보》 편집국장으로서 당국에 대한 비방 혐의로 군정재판에 회부되었다. 8월 미군정에 의해 좌익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령이 내려진 후 검거되어 징역 3월을 선고받았다. 12월 남조선노동당 중앙위원이 되었고, 1947년 1월 한 때 검거되었다가 그해 말 월북했다. 1948년 8월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하여 제1기 최고인민회의의 남조선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1953년 종파분자로 지목되어 숙청되었다.

2 김형준, 「인간의 능동성문제」, 《新人間》 90, 1935.3.

신을 실재의 기계적 반영으로 보는 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정신이 물질적 실재에 제약되어 있는 한 자기제약자인 그 실재를 능동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 인간을 단지 객관적 존재로 또는 주관적 존재로만 보는 한에서 인간은 불안을 극복할 수 없으며 능동적 정신도 발휘될 수 없다. 그러므로 김형준은 인간을 객체와 주체의 대립적 통일물로서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³⁾

인간의 정신은 그 자신이 객관적 존재의 일부이지만 자기를 다른 존재와 구별하고 이와 대립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생활실천에 의해서만 발휘될 수 있다.⁴⁾ 여기에 유물과 유심, 객관과 주관을 통일하여 인간을 보는 인간형성의 논리가 세워진다.

1. 관념론 비판

김형준은 현대 문화가 개인적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 서 있지만 이 자유주의는 처음부터 자기모순을 가져 파시즘화 되었다고 말한다.⁵⁾ 그에 의하면 근대의 관념론적 사상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주의와 주관주의인데, 근대의 관념론적 사상은 이 두 가지 방면에서 자체의 파멸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간의 개성을 절대 존중하여 모든 것을 개성의 주관적 기능에 맡기는데 급일의 사회현상은 어떠한 개성의 기능도 허용치 않으며 자기네가 지어 놓은 사회현실의 제약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 급일의 개성의 운명임을 그는 주장한다.⁶⁾ 그는 다음과 같이 관념론자들을 비판한다.

첫째, 봉건사회를 전복하여 이룬 근세사회는 자연과학적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전에 보지 못하던 성관(盛觀)을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개인주의적 인간해석은 결국 인간을 물질 즉 자본의 노예로 전락시키게 된다.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이라고 보는 근대의 관념론은 개인의 자유를 억제할 어떠한 권력도 기관도 없다. 개인이 어떠한 행위를 감행하거나 또는 어떠한 이익을 소유 획득하거나 그것은 그 개인에게 속한 절대적 자유이다. 이러한 개인적 자유주의는 결국 자유경쟁을 낳지 않을 수 없고 각 개인이 자기의 자유기능을 발휘하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근대사회는 이른바 자유경쟁의 기초 위에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자유경쟁은 우승열패,

3 같은 글.

4 같은 글.

5 김형준, 「세계문화의 신전망」, 《新人間》 87, 1934.12.

6 김형준, 「현대사상의 동향」, 《新人間》 93, 1935.7

약육강식이란 생존경쟁의 비참한 사실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고, 처음에 일반적으로 부여되었던 개성과 자유는 자유경쟁을 통하여 모든 권익이 한편으로 집중됨에 따라 민중과 괴리된다⁷⁾.

둘째, 관념론자들이 인간을 이성, 의식 등으로 보았던 것은 결국 자신의 육체까지 이성, 의식 등의 소산이라는 역설에까지 도달하게 되어 객관세계의 온갖 실재까지도 인간 두뇌의 소산물이라는 망상에 떨어지게 되었다. 인간은 감각을 통하지 않는, 또는 객관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한 이성 또는 의식으로서의 인간 존재를 생각할 수 없다. 이성은 감각의 활동을 통제하는 능력을 지니지만 그러나 인간은 이성을 감성으로부터 독립시킬 수 없다. 감성에 의해 지각된 개개의 현상이 이성에 의해 결합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성과 감성은 서로 不可離의 관계에 있는데 관념론자들은 이를 분리시키고 있다.⁸⁾

셋째, 진리란 역사적으로 변화되고 전화 발전하며 또한 계급적 성질을 가진다. 인간이 보는 객관세계는 초자연 혹은 초인간의 절대적 신(神), 또는 절대 진리가 있어 이에 지배되고 창조된 것이 아니다. 인간과 객관세계의 자연을 떠나 절대 독존하는 신이나 진리는 없으며 우주의 만유는 오직 자기자신의 자위(自偉)적 실천에 의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역사적 단계로 생성될 뿐이다. 끊임없는 유전(流轉)과 변화, 생성, 소멸의 모든 현상은 오직 이 자연과 인간이 무궁히 성장하는 한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진리란 어떤 초자연 내지 초인간의 선형적 존재의 상태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우주(자연 내지 인간) 자신의 부단한 변화와 성장, 다시 말하면 우주자신의 영원무궁한 역사적 과정에서 생성되는 과정으로서의 진리이다.⁹⁾

넷째, 앞으로의 문화는 적어도 금일의 과학의 성과를 섭취하고, 과학적 정신을 기초로 하지 않고는 그 존립의 가치를 갖기 어렵다고 볼 때, 관념론은 생산성이 결여된 것이다.¹⁰⁾ 예를 들면 물리학에 있어서 물체를 연구하는 데는 형이상학적 사유와 같이 어떤 가상의 원리에 의하여 연역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또는 선형적 방법과 같이 인간의 경험이전의 선천적 사유능력이라는 어떤 개념에 의해 판단해서는 그 물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¹¹⁾ 그러나 과학 이외의 모든 문화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문화형태에 대한 과학의 우위를 그대로 승인해서도 안된다¹²⁾

7 위의 글.

8 김형준, 「현대사상의 동향 二」, 《新人間》 93, 1935.6.

9 김기전, 「천도교의 출현과 그 필연성」, 《新人間》 38, 1929.8.

10 김형준, 「현대와 철학의 중요성」, 《新人間》 69, 1933.7.

11 김형준, 「문화의 위기와 그 전망」, 《新人間》 64, 1933.2.

2. 유물론 비판

한편 김형준은 관념론과 달리 맑스의 사적 유물론의 입장을 일정부분 수용하면서도 이 역시 비판을 가하는데 이는 인간의 주체성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맑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물질적 생산자 또는 물질적 모든 조건에 제약되어 있는 이른바 물질적 인간으로, 인간의 이상이란 것은 인간 개개인의 의지와는 독립하여 이루어지는 사회관계의 반영물로서 나타나지만 이는 반만의 진리¹³⁾라고 김형준은 말한다. 김형준은 맑스의 사상으로 부터 반 정도의 진리를 취하고 있다. 맑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이 종전의 기계적 유물론자들과 다른 점은 외부의 사물이 단지 수동적으로 우리의 두뇌에 반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 또는 생활과정, 즉 실천을 매개로 하여 반영된다는 것으로 이에 보다 높은 평가를 둔다.

인간은 실천 즉 생산노동을 통해서만 외부의 사물을 인간 두뇌에 반영시켜 인식할 수 있기에 인식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천이 된다. 여기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은 인식의 역사성을 주장하게 된다. 인간의 인식은 역사적 사회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그 시대의 생산노동 실천의 정도에 의존한다. 그리고 인간은 생활을 위하여 생산에 참가하자마자 각 개인의 의사와는 독립된 관계 즉 생산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생산관계의 기초 위에 법률적,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문화적, 온갖 관계가 건축된다. 그러나 김형준은 이와 같은 입장에 동조하면서도 이러한 생산관계는 어느 일정한 발전계단에 이르면 생산제력(生産諸力)을 제약하는 질곡이 됨을 강조한다. 변증법적 유물론자들은 역사적 과정을 객관적 필연성에 의한 것으로만 보아 개성의 기능을 무시한다고 김형준은 비판하는 것이다. 그는 맑스처럼 인간의 인식작용을 물질의 운동과 한가지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무리 실천을 인식의 매개 또는 기준으로 설정한다 하더라도 실천은 의식 또는 기도(企圖)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는 까닭이다. 인간에 대한 객관적·역사적 사회는 필연의 법칙을 갖고 있다면 역사적 사회에 대한 주체로서의 인간의 실천은 능동적 자유를 갖고 있다. 능동적 자유를 떠나 실천은 불가능하다.’¹⁴⁾ 이것이 그가 맑스의 변증법이 반만의 진리라 말한 이유이다.

12 김형준, 「현대와 철학의 중요성」, 《新人間》 70, 1933.7.

13 김형준, 수운주의자의 인간적 태도 六, <신인간>, 1934.8.

14 김형준, 「현대사상의 동향 二」, 《新人間》 93, 1935.6.

3. 상대주의 비판

김형준은 이상과 같이 유물론과 관념론을 비판하면서 상대주의의 객관과 주관의 통일을 정당하게 여긴다. 하지만 그는 상대주의의 입장을 지지하는 편이지만 상대주의가 갖는 회의론적 결함을 극복하고자 했다.¹⁵⁾ 19세기 이후에 생겨난 세계관의 하나로써 이 상대주의자는 “절대진리란 없고 진리란 오직 사물을 인식하는 그 순간에 의거하여 있는 상대적 가치밖에 갖지 못한다”는 입장을 가진다. 그는 딜타이의 표현, 이해, 해석의 세 가지 인식 단계를 언급하면서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인식하려는 사물이 자기의 내부에 비추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어서 자기의 표현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인식단계를 거쳐 자기이해, 자기 해석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식한 가치는 언제든지 절대적인 것이 못되고 항상 인식자의 자기표현, 이해, 해석의 정도에 의거하여 있는 상대적인 진리에 불과하다 했다. 따라서 김형준은 이러한 상대주의가 인간의 진리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을 갖지 못하는 점에서 주관적 회의론으로 전락되기 쉬우며 더욱이 그들은 이상에 대한 절대적 신념을 갖지 못한 데서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나 현대의 격류(激流)하는 파시즘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데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¹⁶⁾ 그러면서도 김형준은 딜타이의 입장을 바탕으로 일체의 관념형태나 순수경험을 기초로 하는 과학까지도 모든 사유가 생활체험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것임을 분명히 하여 이를 정당하게 받아들인다.¹⁷⁾

인간은 사유하기 전에 먼저 행동하며 생활한다. 행동과 생활이 인간의 본능이라면 사유는 경험과 환경과 교양 등에서 얻은 가공적 지식이다.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세상에

15 김형준은 상대주의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8세기의 사유철학에 반기를 들고 나타난 셸링을 위시한 낭만주의 문화를 시발로 19세기 말엽부터 대두된 니체, 딜타이, 짐멜 등, 생의 철학의 일군이 그들이다. 또한 베르그송이 사유대신에 직관을 인식의 유일한 기초로 하고 있는 것, 훗설등의 현상학파가 사유 또는 지각으로서 얻은 경험적 지식을 假象知라하여 제한을 하고 현상학적 방법에 의한 본질직관을 주장하고 있는 것, 또는 하이데거 야스퍼스 등의 인간학파가 사유보다 情意에 입각한 직관철학을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온갖 경향이 사유만을 유일의 기초로 하는 인식론철학의 비진리성을 여지없이 폭로하고 있다.”(오성, 「신앙과 직관」, 《新人間》 90, 1935.3.)

16 김형준, 「수운주의자의 인간적 태도 四:이상에 대한 태도3」, 《新人間》 82, 1934.7.

17 午星, 「신앙과 체험」, 《新人間》 88, 1935.2.

나오는 갓난아이는 어머니의 실재나 세계의 실재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본능적으로 먹을 것을 위하여 행동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역사의 시초는 인간의 사유에서부터가 아니라 그들의 생활행동에서부터이다. 원시인은 진리탐구를 위한 사유자, 철학자가 되기 훨씬 이전에 먼저 생활의 탐구자이었으며 생활을 위하여 행동하였다. 인간역사의 오랜 기간은 사유활동이라기보다도 생활활동의 시기이었다. 그러므로 수운도 사유활동 이전의 인간역사를 가리켜 ‘전만고후만고를 넉넉히 생각해도 말도 없고 글도 없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김형준은 딜타이의 사상을 <주지주의에 반대하는 知情意의 통일체>로 파악했다.¹⁸⁾ 딜타이는 생의 계기를 셋으로 나누어 체험, 표현, 이해라 하였는데,

첫째, 체험이란 일종의 내부적 경험으로 외부존재와 접촉할 때, 내부적 조건 밑에서 경험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체험은 의욕, 감정, 표상이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의욕과 감정은 체험의 중심이다. 그리고 표상(表象)은 인간의 의욕과 감정의 기초 위에서만 성립되는 것이고 다시 그 위에 지각, 기억 및 사상계열과의 결합이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의욕, 감정, 표상의 전체적 관련은 생의 본질이며 인간의 사유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다. 체험은 끊임없이 유동하기에 인간은 항상 형성과정에 있다. 그리고 체험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계기를 포함한다. 즉 현재의 체험가운데는 과거의 체험과 연결되는 계기가 있는 동시에 미래에 이끌려 가는 계기가 있고, 현재의 체험가운데는 언제든지 과거와 미래가 움직이고 있다. 여기서 인간 생의 시간성이 생기는 것이다.¹⁹⁾

둘째로, 체험이 생의 내면화라면 표현이란 생의 외면화, 객관화를 의미한다. 생은 하나의 정신물리적 통일체이다. 인간 생은 단지 정신만도 신체만도 아니다. 생의 기본구조는 인간과 환경과의 작용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정신생활은 한편으로는 환경에 제약되어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환경에 작용을 가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적 물질을 이용하고 그것을 변화시킴으로써 인간 자기를 표현한다. 그리고 개개인의 물질적 생활의 동형성(同形性)은 정신적 활동의 상호관계를 유형 짓는다. 이 심적 상호관계를 하나의 목적 연관에 결합시키는 데서 이른바 문화체계라고 하는 예술, 학문, 종교 등이 성립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관계를 하나의 전체적 구속 밑에 결합시키는 데서 외적조직이라고 하는 국가, 교회, 가족 등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모두 인간의 외화, 즉 자기표현을 의미한다.²⁰⁾

18 卞星, 「반주지주의적 경향」, 《新人間》 96, 1935.9.

19 위의 글.

셋째, 이해는 체험의 내면화와 표현의 외면화를 통일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해는 표현에 의하여 외화된 생을 내적인 것에 귀입시키고, 체험에 의하여 내재화된 것을 외적인 것에 이입시키는 생의 환원과정이다. 즉 인간의 일상적 체험을 역사적, 사회적 실재에 옮겨 그 실재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인간의 외적 표현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화체계를 인간의 일상적 새로운 체험으로 가져와 그 생명성을 주는 것이 이해이다. “인간의 내적 체험을 역사적 사회에 이입시키는 데서 인간의 삶은 역사성을 갖게 되고, 사회적 실재를 내적 체험에 이입시키는 데서 역사적, 사회적 실재는 생명성을 갖게 된다.”²¹⁾ 이것이 딜타이에 있어 주관과 객관의 통일을 설명하는 방식이 된다. 김형준은 바로 딜타이의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딜타이가 갖는 주관적 회의론을 극복하고자 물심일치의 세계관을 말했다.

4. 김형준의 ‘인간성-무궁’론

1) 전체와 부분의 통일

김형준은 현대 서구사조를 비판·수용함과 더불어 현대적 표현으로 수운사상을 설명하였다. 인내천에 있어 인간이 한울이라는 것은 전체와 부분의 통일을 말한다. 사람과 한울의 관계는 소아(小我)에 대한 대아(大我), 부분에 대한 전체, 특수에 대한 보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소아, 부분, 특수는 대아, 전체, 보편의 어떤 목적에 의한 피조물이 아니요 그것과 동시에 ‘소여(所與)된 것’이라 김형준은 말한다. 물론 한울을 대아, 전체, 보편으로 볼 때에 이러한 한울이 소아, 부분, 특수보다 선재적인 것은 사실이다. 인간의 발생은 시간적이며 그 생존은 유한함에 반하여 한울의 생성은 무시간적이며 무한적, 영구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인간은 한울 속에서 이루어진 피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김형준에 의하면 이것은 한울과 인간을 한 현상형태로서 보는 데서 생기는 피상적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일상적인 인간의 현상형태를 떠나서 인간의 본원을 더듬어 본다면 인간의 생명은 우주의 시기(始起)와 함께 소여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인류학자의 말처럼 인간이 태초의 무기물로부터 생성되었다 해도 무

20 위의 글.

21 위의 글.

기물 가운데 인간이 생성될만한 생명적 요소가 잠재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울은 인간보다 선제적인 것이나 전체인 한울의 내부에는 이미 부분인 인간존재의 소질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승인치 않을 수 없는 점에서 한울과 인간은 그 기원에서 동일하다. 인간은 한울의 품속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한울의 피조물이 아니요 한울의 일부분으로서 전체인 한울과 동일한 기원을 갖고 있다. 전체와 부분은 서로 대립적이면서도 또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으며, 전체를 떠나 부분이 존립할 수 없고 부분을 떠나 전체를 생각할 수 없음은 이 까닭이다.

그는 또한 근대 물리학의 결함을 말하는데, 이는 “전체가 부분의 합성체”임을 발견하였을 뿐, 전체와 부분간의 대립적 통일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다. 자연계는 부분의 합성체이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통일체이며 그리하여 전체의 운행법칙에 의하여 각 부분의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더욱이 인내천(人乃天)은 객관세계 즉 자연계를 단순히 물리학적 설명과 같이 한 개의 물체의 현상으로 보지 않고 소아에 대한 대아 즉 인간에 대한 한울의 기화작용으로 보는 점에서 객관세계를 무질서한 합성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은 이러한 한울의 기화작용으로서의 자연현상의 지배 또는 제약을 면할 수 없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현상의 일부이며 자연의 지배 제약 밑에서 생존하는 한에서 한울의 운행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²²⁾고 그는 말하였다. 이는 현대적 의미로 말하면 주체의 다양성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가능성과 독점(Monopoly)을 거부하는 맥락을 지니는 것이다.

2) 주관과 객관의 통일

그는 인간이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를 떠나서 인간은 될 수 없다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 자신은 그저 막연한 사회적 존재가 아니라 각각 독특한 개성으로서 사회에 대립하면서, 그 대립을 통해 통일되는 사회적 존재의 일부²³⁾라 하였다.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제도, 예술작품, 종교, 과학, 기술, 시민적 법률은 모두 인간의 생의 최고계단에서 산출된 문화의 형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는 처음에는 인간의 생을 위하는 것이 되나 그 문화는 완전한 형태를 이루자마자 생의 발전을 위하던 처음의 문화와는 반대

22 卞星, 「인내천에 의한 인간해석」, 《新人間》 100, 1936.2.

23 김형준, 「우주에 대한 인간의 지위(능동적 인간관 五)」, 《新人間》 101, 1936.3.

로 인간을 속박하며 압박하는 것으로 전화된다. 끊임없이 유전하는 인간의 생과 고정 불변하려는 문화의 형식과는 서로 모순과 충돌을 낳게 되는데²⁴⁾ 이러한 전통과 인습으로부터 벗어나는 데서만 후천의 창건이 가능하다고 그는 말한다. 물론 그 전통과 인습은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김형준은 그 전통과 인습의 속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전통과 인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현실적 지위를 망각케 한다. 이전 세대들이 행하던 것을 모두 절대적인 것, 모범적인 것으로 보게 된다. 그리하여 전통과 인습에 얽매인 사람들은 현재의 자기를 항상 과거의 규준에 의하여 평가하게 된다.

둘째, 역사적 전통은 그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전통적 의식은 마치 고추에서 난 벌레가 고추 매운 줄을 모르는 것과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전통과 인습의 폐해를 자각치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전통적 의식을 갖은 사람들은 항상 보수적 입장에 머무르게 되며 현실의 새로운 방향을 인식치 못하게 된다.

셋째, 역사적 전통은 일상적 교화력을 갖고 우리들의 정신에 침전되고 있다. 가정의 교훈에서, 그리고 선배의 지도에서, 그 지방의 습속에서 또는 목사나 승려들의 설교에서 온갖 역사적 교육에서 사람들의 의식은 차츰 현실을 망각하고 조상의 과거사실을 존송하는 회고적 정신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자각적 의식은 이 전통적 교화력에 의하여 마비된다.

넷째, 역사적 전통은 현실적 힘을 갖고 온갖 사람들을 지배한다. 기성종교의 계칙(戒則) 윤리도덕의 규범, 풍속, 습관, 제도 등으로서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며 제약하게 된다.

다섯째, 역사적 전통은 일종의 유전력을 갖고 있는 까닭에 그 폐해를 인식하는 사람들도 오랜 시간과 부단한 노력을 쌓지 않고는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해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전환기에 있어 새로운 건설을 뜻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과 싸우게 된다²⁵⁾하였다.

인간은 이와 같이 한편으로 객관적 필연성에 의해 지배되고 자신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객관에 대한 주체적 행동에 의하여 영위되는 대립적이고도 모순적인 통일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우주자연의 일부이고 우주자연에 지

24 위의 글, 속편, 《新人間》 101, 1932.7.

25 김형준, 「신인간이되기 위하여」, 《新人間》 86, 1934.11.

배되며 동시에 자연을 자신에게 대립시켜 이를 극복, 변혁, 재생산하여 새로운 창조와 발전을 가하는 주체이다. 인간은 우주(한울)의 중심생명으로서 자연을 한울중심으로 재건 발전시키는 우주의 주격(한울我)이다.²⁶⁾ 사회가 인간 주체와 객관세계의 통일이듯이 인간 자신도 주관과 객관을 통일시키는 존재이다. 객관주의나 주관주의에 만족치 못하는 현대인이 이러한 주관과 객관의 구체적 통일체인 인간의 탐구로부터 재출발하려는 인간주의를 절규하게 된 것은 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그는 말한다. 또한 근래에 제임스, 듀이, 등에 의하여 제창되는 실용주의에서도 이러한 휴머니즘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들은 개인의 주관을 존중시하여 모든 가치가 오직 각 개인의 실용여하에서 결정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므로 주관적 모순이 있다 하였다.

3) 인간본위로의 복귀

김형준은 위에서 언급한 인간주의적 경향이 벌써 오래 전부터 천도교의 교리로서 인내천주의에 나타났다고 한다. 그는 수운의 “산하대운(山河大運)이 진귀차도(盡歸此道)하리라”는 말도 인류역사를 통찰한 것에서 확신을 가지고 장래를 예언한 진리적 양심의 표현이라 하였다. 오늘날 인간주의의 절규는 이러한 “산하대운 진귀차도”의 한 조징(兆徵)이요, 오늘의 인간주의적 경향의 성향을 사상적 또는 문화적 동귀일체의 현상이라고 한다. 물론 금일의 온갖 인간주의 사상은 각자 주장하는 바에 따라 상이하고, 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점도 있다고 한다. 즉, 그들 가운데는 “인간을 건전한 존재로 보지 못하고 병적 존재로 보아 불안, 고뇌, 우울 등을 인간의 본질이라 하거나 또는 인간을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으로 분리시켜 보는 경향은 인내천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 현대의 인간주의적 경향은 지금까지 인간의 정신문화를 지배해 온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의 파산으로부터 생긴 것으로 그 출발과 방향에 있어서는 이미 수운 자체가 오래 전에 타개한 길을 걷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⁷⁾ 그러나 수운이 뜻하는 인간주의란 인간이 한울로서 이 무궁성을 스스로 실현함에 있다고 김형준은 말하는 것이다.

인간은 객관세계를 인식할 때 그 사회의 관습과 규범을 통해 받아들이지만 그 주입 받는 것으로만 머문다면 인간의 창조성과 능동성은 소멸된다. 지금까지 변화 발전되어

26 김형준, 「우주에 대한 인간의 지위(능동적 인간관 六)」, 《新人間》 102, 1936.5.

27 김동준, 「종교인의 근본태도」, 《新人間》 101, 1936.3.

은 인간의 역사적 과정을 과학적 혹은 직각적으로 관찰 체득하여 역사적 전첨(前尖)이 지시하는 것으로써 인간 자신의 중추사상을 삼아 그로써 실천하여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그 중추사상이란 것은 사람은 한울이요 한울(一圀)은 하나라는 인내천 사상이다. 이 세계의 궁극자는 곧 인간 안의 한울로 이 한울을 깨달아 이와 합하고 스스로 실현해 갈 때 인간은 보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이 하나요 사람과 우주가 하나라는 말이 성립된다.²⁸⁾ 천도교의 인간되는 핵심이 여기에 있다. 인간은 일상생활에 있어 모든 일을 시작하고 마칠 때 그리고 자기의 몸에 크고 적은 변화가 생길 때마다 자기의 붙잡은 중추적 사상을 위해 충실히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²⁹⁾

이상과 같이 김형준은 관념론과 유물론 및 상대주의를 비판하면서 상대주의가 갖는 주관과 객관의 통일적 측면을 수용하고 동시에 천도교의 인내천주의로 우주와 개체, 객관과 주관, 인간주의의 의미를 주체적으로 설명해내고 있다. 김형준은 인간이 지향할 궁극적 목적은 관념론자들이 말하는 순수의식도 아니고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객관에 의한 지배도 아니다. 인간은 객관에 의해 자기 의식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운데 자신의 주체적 능동성으로 인하여 세계에 작용을 가하고 자신도 스스로 변화 해가는 존재이다. 그러면서도 상대주의가 갖는 회의론을 벗어나 무궁성의 준적을 잡아 이를 충실히 실천해 가는 인간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한울(전체)과 합하는 보편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창조활동을 하는 것이 인간 삶이자 교육의 의미임을 강조하고 있다.

III. 소춘 김기전의 '인간건축'으로서의 교육론

소춘(小春) 김기전(1894 - 1948)은 천도교 신문화운동의 핵심적 거두라 할 수 있다. 그는 1920년 《개벽》 편집국장에 취임하고 1921년에는 천도교소년회를 조직하여 방정환의 배후에서 어린이운동을 지도하였다. 또한 오심당활동을 전개한 민족운동가³⁰⁾로 모든 천도교 부문운동에 받침대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러한 그가 교육이론에 있어서도 일가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는 동학에 바탕한 인간형성의 이해를 건축에 비유하여 근

28 金起田, 「新人難」, 《新人間》 6, 1926.10.

29 小春, 「심고를 꼭꼭 勵行합시다」, 《新人間》 19, 1927.12.

30 김정희, 『한국의 소년운동』, (서울:해안, 1999), 51쪽.

대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가한 것이다. 앞에서 김형준은 철학적으로 이론을 전개했다면 김기전은 같은 맥락에서 이를 건축에 비유하여 인간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삶은 시간적으로 억천만년의 역사와 직접하였고 공간적으로 십수억만을 헤이는 인류사회에 담기워 있는 바 역사와 이 사회는 한가지로 인생을 깊게 하며 넓게 하며 크게 함이 될 것이다. 즉 백년이라는 짧은 생명과 오척이라는 적은 몸을 導線으로 이 우주의 전 역사를 섭취하고 이 사회의 전내용을 포착하여 얼마라도 오래살고 얼마라도 크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종의 건축업자!

사람의 일생은 한 개의 훌륭한 건축업이다. 남을 위하여 건축하고 그 대신 임금을 받는 건축업이 아니라 오직 자기로써 건축하고 자기로서 살기 위하는 한 개의 건축자이다.³¹⁾

먼저 그의 인간이해를 보면, 인간 삶은 현재로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억천만년의 역사와 직접 닿아 연결되어 있고 공간적으로 십 수억만을 헤아리는 인류사회에 담기워 있는 존재이다. 이는 앞에서 말한 김형준의 우주와 인간의 통일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은 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장시킨다. 현재는 과거로부터 생겨난다. 인간 삶은 과거 역사를 내장하고 태어나고, 이 우주의 전 역사와 이 사회의 전 내용에 담긴다. 그리고 오직 이를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는 기초를 만들게 된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낮은 데로부터 높은 단계에, 단일로부터 복잡해 나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시간이 있으며 역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우주 안에 현존한 일체의 것, 사람과 자연을 물을 것없이 모두가 시간적 역사적 산물 아님이 없다. 시간이 없이 역사가 없이 어떤 순간에 문득 생겨서 또한 시간의 추이와 관계없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인간은 사회로부터 받는 통유성이 있기에 그로부터 자기를 형성할 수 있는 발판을 얻는다.

만약 인간이 감관은 있으나 대상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만 있거나, 혹은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공간에 있다면 인간 의식에 있어서는 시간의 흐름도 존재의 형성도

31 김기전, 「일상생활의 의식적 건축」, 《別乾坤》 7, 1929.12, 144쪽.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존재의 형성은 역사적 시공의 경험들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인간은 부모나 교사 등으로부터 직접간접의 가르침을 받고 사회환경으로부터 크고 작은 감극(感戟)을 받으며 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의 의식이 명료하게 되는 때에 이르러서는 지금까지 받아왔던 사회적 통유성에 자기라는 특수성을 참여시켜 자기건축의 구체적 도안을 얻는다. 이는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이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교육받는 사회화는 곧 김기전이 말하는 통유성으로 여기에 인간 개인 자신의 특수성을 붙여넣어 자기건축의 도안을 얻지 못하면 교육은 사회화에서 그치고 만다. 김기전은 만일 이 특수성을 가하여 자기건축의 도안을 얻지 못하면 인간의 일생은 무의미요 공허요 뒤죽박죽이요 지리멸렬이라 하는 것이다.³²⁾

자신의 특수성 즉 실존성을 부여하여 자기 건축의 도안을 설정하지 않으면 인생은 목적 없이 무의미하게 표류할 뿐이다. 건축도안 없이 건축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돈화는 김기전이 말한 〈특수성의 설계도안〉이라는 표현을 인간성의 ‘능동적 주관’이라 하였다.³³⁾

이돈화에 의하면 객관세계는 곧 인간의 능동적 주관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인간의 보다 높은 이상의 선택에 의하여 개조되어야 한다. 김기전 또한 만일 인간 개인이 통유성에 특수성을 능동적으로 가하여 자기 건축의 도안을 세우라 하고, 세웠다면 그 다음으로 일상행위에 몰입해야 한다고 말한다.³⁴⁾

사람의 일생이 한 개의 건축이라 하면 인간은 그 건축을 낙성하기 위하여 일상행위를 총집중시켜야 한다. 인간의 일상행위는 어느 것 하나 간과됨이 없이 자신의 건축물에 포함된다. 이것은 마치 어떠한 위대한 건축일지라도 모래 한 알 돌조각의 미세한 부분을 집성하여서 지어지는 것과 같다.

우스운 이야기 한번하고 산보 한 번 하는 것이라도 인간은 그 위대한 자기건축에 흠 한 줌 삼지 않을 수 없고 신문 한 장 보고 게시판 한번 살피는 것도 그 건축공사의 벽돌 한 개 보태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오직 위대한 목적의식인 자기의 건축도안에 따라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자기의 대소행동을 규율하여 그러한 행위와 습관을 형성하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건축물을 위해 모든 정성과 열정을 다하는 것이 참된 인간건축의 길이 된다. 이 일상행위의 총집중과 총동원의 유무에 따라

32 김기전, 「일상생활의 의식적 건축」, 앞의 글.

33 이돈화, 『신인철학』, (경성:천도교중앙종리원신도관, 1928), 75-79쪽.

34 김기전, 위의 글.

한울 됴과 되지 못함이 있다. 자신의 건축완성을 위하여 살고 또한 그것을 위해 죽는 그 무엇, 즉 일동정(一動靜), 일어묵(一語默)이 이를 위하여 있을 것을 인간에게 요구하고 있다.

인간건축의 완성이란 수운의 표현대로 하면 한울님과의 합일이며 이돈화의 표현대로 하면 인간무궁성의 실현이다. 그러나 일상행위의 건축을 위한 몰입을 위해서는 역사적 비판의식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역사적 비판의식을 가질 것!

모든 것은 변화하며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낮은데로부터 높은 단계에, 단일로부터 복잡해 나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시간이 있으며 역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우주안에 현존한 일체의 것, 사람과 物을 물을 것없이 모두가 시간적 역사적 산물아님이 없는 것이다. 시간이 없이 역사가 없이 어떤 순간에 문득 생기어서 또 시간의 추이에 관계함이 없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1. 이 우주에는 초시간 초역사의 절대적 무엇이랴곤 없는 것이다.
 2. 우리 인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어져 나아가는 역사적 상태의 일체는 낮은데로부터 높은데에 이르는 인류사회의 무궁한 발전상에 놓인 잠시적 단계에 지나지 못한다. 각단계는 그야말로 필연의 것으로서 그 단계를 발생케 한 그 시대와 그 조건과에 대해서는 존재할 이유를 가지나 그것이 노쇠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태내에서 점차 발달해서 나타나는 더높은 더 새로운 조건에 대해서는 그 존재할 이유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전단계는 소폐되고 그보다 더 새로운 단계는 지어지는 것인바 이것이 그 시대사람으로서 실천에 의해서 파악할 현실이라는 것이다.
 3. 이 현실을 붙잡아 이 단계의 사람이될가 지나간 소폐된 粗粕을 그대로 넣어 취생몽사를 할가
卑近!
- 일상의 비근한 실례에서 해석되고 실행되지 아니하면 안된다.³⁵⁾

자신의 건축도안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현존하는 기존세계를 딛고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기존세계를 벗어나야만 자기건축의 도안에 따라 건축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건축의 도안에 따라 현실과 역사를 비판하여 자기 건축도안의 실축을 위해 일상행위에 몰입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인간이 이 현실만을 부여잡

35 위의 글.

아 그 단계에만 남아 안주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존재할 이유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며, 소멸될 세계에 육신을 넣어 취생몽사하는 꼴이라고 김기전은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실존철학적 교육에서 인간의 자기창조를 위해서는 현실의 순응과 안주보다 용기와 기투적 결단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과 맥락이 같다.

IV. 천도교가 제시하는 현대교육의 방향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동학·천도교가 제시하는 교육에는 3대 요소가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성 무궁의 본연성과 우주생명, 사회가 그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누면 5가지 교육의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는 곧 인간성-무궁의 인간관에 기초한 교육이념에서 도출된 것으로 ① 생명공동체 교육 ② 민족, 역사, 문화의 서사적 사회화 교육 ③ 역사비판과 주체화교육 ④ 자기준적(自己準的) 확립의 교육 ⑤ 홍익인간의 동귀일체 교육이다.

인간성의 한 부분은 원리상 우주자연으로부터 오기에 자연은 인간형성의 한 영역이 된다. 인간 본연성 자체는 외부환경의 힘이 가해질 때 비로소 주재하는 힘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간 자체는 외부자연의 객관적 산물인 동시에 자신의 능동성이 결합되는 것이므로 우주전체와 인간은 하나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계에는 모두 특수한 본연성이 있다. 사람의 본연성은 형식의 가능성으로 주어져 있기에 그 자체만으로는 구체화되지 않는다. 여기에 외부 객관의 힘이 가해져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개성의 능동기능이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에 수천년 이래 사람성 능동기능이 총합된 것을 사회기능이라 한다. 이는 앞에서 김기전이 말한 사회의 ‘통유성’과 같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기능에 다시 사람성 능동기능이 합쳐져 사람성 자연이 생겨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수천년 이래 축적되어온 사람성 능동기능의 총합가운데 태어나 이와 더불어 자신의 의식을 형성하고 주체적 실존을 투사하여 사람성자연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성 무궁인 한울님은 초월적 세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 내에서 가능성으로서의 형식인 본연성이 인간 주체에 의해 사회 및 사람-자연성과 결합되어 획득되는 것이다. 따라서 억압과 획일의 근대교육을 벗어나 차이와 다양성의 탈근대적 교육을 전망할 때 동학과 천도교의 교육론은 적절한 교육에의 암시를 주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5대 교육목표로 현대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1. 생명공동체 교육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한울의 지기(至氣, 靈氣)를 부여받아 태어나는 것이고 사람이 사는 것도 한울의 지기(영기)를 모시고 사는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천지만물이 모두 한울을 모시지 않은 것이 없다. 새소리도 바로 한울님의 소리요, 인간의 밥먹는 것 자체가 한울이 한울을 먹는 것으로 한울(밥)로써 한울(인간)이 생겨나는 것이다. 인간은 신령한 한울인 동시에 우주 만물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자기 안의 한울을 섬기고 또 한 천지의 창생을 위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 된다. 우주 만물은 시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천했음을 알지 못하지만 인간은 우주의 기운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시천했음을 알아 자신과 천지를 하나로 하여 생성을 도와가는 존재이다.

천지는 만물의 아버지요 어머니라고 해월은 말했다. 젖이 사람의 몸에서 나는 곡식이 라면 곡식은 천지의 젖이다. 사람이 어렸을 때 먹는 젖이나 자라서 먹는 곡식 모두가 천지의 젖이다. 따라서 인간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처럼 인간은 오곡으로 길러준 천지에게 감사한다. 인간의 식고는 바로 이러한 천지의 은덕을 갚는 이치이다. 한울이 한울을 먹는 것은 이 한울이 저 한울을 침해하는 의미로써 먹는 것이 아니라 우주자체가 그 스스로의 생명을 키우고자 하는 조장운동이다. 사람은 천지의 한울 젖에 의지하고 한울은 자신의 젖을 먹고 자란 인간의 영력에 의지한다. 한울은 인간을 의지하여 조화를 나타내고 인간은 한울을 의지하여 호흡과 생명을 이어간다. 인간과 천지만물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우주는 하나가 된다.

오늘날 생명경시와 환경오염과 파괴에 대한 우려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요즘 사람 들은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자연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이원론적으로 대립된 사고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이다. 수운의 세계관에 의하면 인간과 천지만물이 모두 하나이기에 자연을 위하는 것이 인간을 위함이고 인간을 위하는 것이 자연을 위하는 것이라는 하나된 인식하에서 시천 만물(侍天萬物)을 제시하고 있다. 해월은 천지가 한 기운임을 알기에 어린이가 나막신을 신고 땅을 밟으니 그 패이는 흙에 자신의 가슴이 너무나 아프다고 했다. 그는 땅을 소중히 여기기를 어머니 살 같이 하라고 하여 천지와 인간이 모두 하나임을 체화된 경험으로 제시한다. 이는 인간이 한울님을 모신 한울로서 천지와 하나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우주는 한 몸이요 한울의 표현이기에 풀 한포기 작은 생명 하나 하나가 소중한

다. 해월이 경심(敬心), 경인(敬人)에서 경물(敬物)까지 말하는 것은 이러한 세계관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만물은 한울에 의한 피조물이 아니라 한울 자체이다. 한울의 자율적 창조성으로 말미암는 ‘한울 스스로의 표현’이다. 김기전도 인간 삶은 현재로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억 천만년의 역사와 직접 닿아 연결되어 있고 공간적으로 십 수억만을 헤아리는 인류사회에 담겨어 있는 존재라 한다. 인간은 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장시킨다.

천도교는 일찍이 자연이 만들어주는 인간형성을 중시했다. 본질적으로 인간이 자연 속에서 성장해야 진실된 인간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봄이 되면 산에 가라하고, 골짜기 흐르는 물에서 봄소리를 들으라 한다. 꽃과 새들은 어린이에게 아름다운 느낌과 고운 마음을 길러 주고 흐르는 맑은 물은 용기와 부지런함을 가르쳐 주며 높은 산들은 독립자존의 기상을 일러주고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은 어린이의 몸을 단련한다. 새가 노래하면 어린이도 노래하는 그 일체의 경험에서 기쁨과 흥미가 땀으로 배어 나온다. 이때 비로소 어린이는 참생활과 참 지혜를 배우며 그러한 중에 몸과 마음이 우쭐우쭐 자란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연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큰 사람이라야 심신이 완전한 사람이 될 것이라 하였다. 자연은 거짓이 아닌 순수함을 가르쳐준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생명과 인간이 모두 한울의 표현으로 한울의 생성을 도와 가는 생명공동체임을 인식시키는 교육은 인간의 심신을 부드럽고 순수하게 다져준다. 생명공동체의 교육은 빈한한 사람, 부한 사람,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이면 다 같은 사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새 짐승, 풀, 나무들이라도 다 같이 사랑하여 같은 세상에서 즐겁게 기쁘게 살도록 할 것이다. 땅은 모든 것을 길러 주는 어머니이며 모든 인간의 오물을 받아 생명으로 키워준다.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흙냄새요, 땅이 살아있어야 인간도 산다. 분명 자연은 진실을 인간에게 돌려주고 보여준다. 이를 배우는 어린이들은 거짓이 아닌 자연스러움을 몸에 익히고 굳은 힘을 기르게 되는 것이다.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도 이를 바탕으로 할 때 공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이를 외면하면 전쟁과 파멸이 있을 뿐이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한울을 둘로 보지 않는 삼경(三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신뢰하고, 우주와 인간을 한 몸으로 하여 세계를 창조하고자 한다. 자연은 곧 인간이다. 자연이 망가지면 인간도 망가진다. 인간은 자연을 지키고 생명을 소중히 할 때 인간 자신도 온전해 질 수 있다. 생명교육은 바로 이러한 세계관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다. 해월이 한울과 사람과 사물을 공경하라는 것은 이 모두가 한울의 표현으로 하나된 한울임을 이해하여 생명공동체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2. 민족, 역사, 문화의 서사적·사회화 교육

인간은 수 천년 축적되어온 인간의 역사 속에 태어나고 그 사회적 기능으로부터 인간자신을 형성한다. 사회의 기능이란 인간 개체의 능동이 이루어놓은 총합이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태어나지만 그 사회를 이룬 것 역시 인간에서 시작한다. 인간은 자신이 태어난 사회의 체제, 문화, 도덕, 관습을 배워 의식을 형성하고 자기라는 정체성을 확보한다. 그러므로 사회기능은 인간성을 이루는 영역이 된다. 교육은 바로 사회기능 중에서도 최고로 발전되어온 지식과 습을 가르치고자 하고 질 좋은 교육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시대가 바뀔수록 그리고 새로운 과학혁명과 새로운 이론이 생겨나면 지식체계를 재구성하여 보다 넓고 깊은 경험의 지평을 제공해야 한다.

천도교는 개인과 민족, 그리고 문화가 교육의 중요한 요소임을 말한다. 인간은 민족을 조건으로 하여 문화공동체에 태어나게 된다. 인간 자신이 태어난 민족문화는 곧 자신을 형성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 즉 조선인은 조선의 땅과 역사와 문화를 조건으로 자신의 생명을 키우고 이로부터 자기라는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화는 민족을 단위로 이루어진다. 한 민족의 존재가치는 문화를 떠나서 민족의 삶을 생각할 수 없으며 민족 또한 민족단위를 떠나서 문화를 예상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민족문화를 사회화시키는 교육이란 조선사람의 사상, 감정 즉 실사회와 실제 삶에 접촉하여 있는 것이고 이를 찾아 세우고 더욱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고 외래문화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외래문화도 본바탕에 세워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조선과 유리되지 않고 현실과 괴리된 모방적 문명을 맹목적으로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천도교의 어린이교육에 있어서 주된 내용을 이루는 것도 현재까지 공유된 조선의 문화를 속속들이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세계를 알도록 하는 것이었다. 동요와 전설에서부터 지리와 역사, 언어, 자랑거리, 발명품 등 전체를 망라하여 조선을 알려주고 조선을 깨닫게 하여 그들이 조선인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온 세계를 열심히 알라 했다. 어린이에게 있어 조선공부란 조선을 공부하여 조선을 보다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인데 이는 곧 자신의 삶을 보다 크게 만들고 참된 인물로 만드는 것과 같다. 조선사람에게는 조선공부란 것은 밥과 같은 것이다. 민족 역사는 개인의 성장에 정체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민족이 없으면 인간 삶의 정체성과 방향이 부여되지 않고 혼란이 가중

된다. 따라서 조선공부는 곧 자기 정신의 성장이요 방향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진보된 과학지식과 세계일가주의(世界一家主義)에 입각한 각 나라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는 지배담론을 강요하는 이데올로기적 근대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학습의 주체는 아동으로서 교사는 아동의 세계가 열리도록 다양하고 질 높은 지식을 소개하는 의무를 지닐 뿐이다. 교사는 아동으로부터 강요된 지식을 산출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사와 은유, 그리고 지식제시를 통해 아동 주체의 세계형성을 돕는 온화하고 지성 있는 이야기꾼이다. 이야기꾼은 선동과 강요를 목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방정환은 일찍이 전통담론과 교훈적 개념교육을 파기하고 이야기와 그림, 동요, 자연을 일차적인 교육방법으로 삼았다. 인간의 진리에 대한 헌신성과 참여는 이데올로기적 개념주입의 교육에서가 아니라 은유와 서사를 통한 교육의 암시 속에서 인간주체자신이 이를 수용하고 확산하는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교육은 권력과 밀착되어 있는 특정 담론의 대상적 지식교육에서 서사적 지식교육의 형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3. 역사비판과 해체의 주체화 교육

인간이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를 떠나서 인간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 자신은 그저 막연한 사회적 존재가 아니라 각각 독특한 개성으로서 사회에 대립하면서, 그 대립을 통해 통일되는 사회적 존재의 일부이다.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제도, 예술작품, 종교, 과학, 기술, 시민적 법률은 모두 인간의 생의 최고계단에서 산출된 문화의 형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는 처음에는 인간의 생을 위하는 것이 되나 그 문화는 완전한 형태를 이루자마자 생의 발전을 위하던 처음의 문화와는 반대로 인간을 속박하며 압박하는 것으로 전화된다. 끊임없이 유전하는 인간의 생과 고정 불변하려는 문화의 형식과는 서로 모순과 충돌을 낳게 되는데 이러한 전통과 인습으로부터 벗어나는 데서만 후천의 창건이 가능하다. 인간의 생명은 자신이 살고 있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묻고 해석을 가해야 하며 자신의 사회화교육으로부터 얻은 진리적 가치를 현실에 실현하고자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은 자신의 이상(理想)과 괴리된 역사현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 변혁하고자 아니할 수 없다. 물론 그 현실의 전통과 인습은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통과 인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전 세대들이 행하던 것을 모두 절대적인 것, 모범적인 것으로 보게 한다. 그리하여 전통과 인습에 얽매인 사람들은 현재의 자기를 항상 과거의 규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그러므로 역사적 전

통은 그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전통과 인습의 폐해를 자각치 못하게 한다. 전통적 의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보수적 입장에 머무르게 되며 현실의 새로운 방향을 인식하지 못한다. 인간의 자각적 의식은 이 전통적 교화력에 의하여 마비되고, 역사적 전통은 일종의 유전력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그 폐해를 인식하는 사람들도 오랜 시간과 부단한 노력을 쌓지 않고는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해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전환기에 있어 새로운 건설을 뜻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사회로부터 받는 통유성이 있기에 그로부터 자기를 형성할 수 있는 발판을 얻는다. 인간은 부모나 교사 등으로부터 직접간접의 가르침을 받고 사회환경으로부터 크고 작은 감극(感戟)을 받으며 자라는 것이다. 김기전은 인간이 자기의 의식이 명료하게 되는 때에 이르러서는 지금까지 받아왔던 사회적 통유성에 자기라는 특수성을 참여시켜 자기건축의 구체적 도안을 얻는다 했다. 이는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한편 인간을 제약하는 질곡으로서의 이 역사적 현실은 인간의 새로운 건설에 불가결한 소재가 된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문화와 관습은 인간형성에 불가결한 소재가 된다. 인간은 사회(언어)를 통해서 정체성을 부여받고 세계를 질서 지우기 때문이다. 저항은 권력담론에서 나온다는 푸코의 말과 상통하는 것이다. 인간이 현실세계를 떠나서는 인간을 형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정당한 견해와 온전한 행동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은 이 현실을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한다. 김형준은 역사적 현실이 인간에게 질곡이 되는 것을 〈역사적 전통〉이라 하고 인간건설에 소재가 되는 것을 〈역사적 유산〉이라 이름 붙인다. 새로운 인간에게는 역사적 전통은 증오의 대상이 된다. 이는 해체되어야 할 지배담론이다.

인간이 항상 역사의 주체자로 나서야 하는 것은 역사성 자체가 변역(變易)이기 때문이다. 생명과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변화만이 진리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시운을 파악하여 변혁의 주체자가 되지 않으면 시대의 무용지물이 된다. 인간은 자신과 타인이 둘이 아니고 인간과 자연만물이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진 한울님이라는 것에서 자신이 곧 세계완성을 이루어 가는 주체적 조화자라는 역사의식을 갖게 된다. 궁극적으로 교육이 의도하는 바는 만인의 마음속에 잠겨 있는 산 혼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수운의 심법이라는 것도 사람의 산 혼을 일러 하는 말로 사람의 마음속으로부터 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인간은 역사와 현실을 비판하고 현실의 자아를 넘어서는 한울을 깨달아 믿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때 자기와 사회를 해방해간다. 인간은 우주의 일부인

동시에 사회의 산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주체적 행동에 의하여 영위되는 독립적이고도 모순적인 통일체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연과 사회를 자신에게 대립시켜 이를 극복, 변혁, 재생산하여 새로운 창조와 발전을 가하는 주체이다. 인간은 우주(한울)의 중심생명으로서 자연을 한울중심으로 재건 발전시키는 우주의 주격이다.

4. 자기준적(自己準的) 확립의 교육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교육받는 사회화 교육은 곧 김기전이 말하는 통유성으로 여기에 인간 개인 자신의 특수성을 붙여넣어 자기건축의 도안을 얻지 못하면 교육은 사회화에서 그치고 만다. 그러므로 기존 사회의 모순을 파악하고 사회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는 신시대 창조의 정신이 필요하다. 한 시대에 있어 장래할 신시대의 설계도를 구하려고 하면 거기에 신시대 창조의 관념을 가해야 한다. 즉 한 시대의 모순을 발견하고 신시대를 창조하고자 하면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성 자연의 가운데로부터 그 결함을 집어내고 나아가 신시대에 필연적으로 요구할만한 생활방식의 정신적 도안을 세워야 한다. 김기전의 교육론에 있어 건축설계안과 같다. 그리고 그 생활방식의 도안이나 건축설계안에 있어 필요한 것이 곧 준적이다. 인간은 신시대를 창조할 정신을 얻기 위해서 준적을 세워야 한다. 그 준적은 사람성 자연의 변증법적 발전과정에서 찾는 것이다. 이는 역사과정에서 인과를 살펴 명료히 알아낼 수 있다. 봄으로부터 봄의 원인으로 여름이 올 결과를 아는 것과 같이 인간은 역사적 과정에 있어 지나간 사람성·자연이 원인을 따라 지어 놓은 결과를 살펴 도래할 시대의 표준을 얻는다. 또한 이 표준은 현 사회의 모순을 비판함에서 얻어진다. 한 시대의 사람성 자연의 준적을 구하고자 하면 기존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에서가 아닌 개혁과 비판의 입장에서 이를 보아야 한다. 한 시대에 안주하고 안락과 복을 누리하고자 변화를 싫어하고 일상생활과 인습에 함몰되면 새로운 지평은 생기지 않는다. 새시대의 창조는 그 시대의 모순에 눈이 열린 자로서 비판의 눈을 가진 자에게 있다. 그리고 그 비판은 그 시대를 건질만한 대각(大覺)에서 나온 것이라야 한다. 그 대각에 따른 표준은 곧 대원(大願), 대주의(大主義)라 이름할 수 있다.³⁶⁾

36 이돈화, 『新人哲學』, 앞의 책, 273쪽.

① 준적(準的)으로서 대주의(大主義)란 개인을 표준한 것이 아니라 〈인류공동체를 표준한 희망〉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② 준적을 세운다는 것은 무궁한 진리의 힘과 그 절대성을 믿는 신앙이다. 무궁한 절대성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 진리와 힘을 능히 파지함에서 나온다. 인간 자신의 일동일정(一動一靜)이 인간의 적은 힘과 적은 지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한울님이라 하는 전체적 초월성이 자기의 몸에 실여(實與)됨을 믿는 신앙에서, 그리고 자신의 현상적 자아가 본래적 자아로 전환(Conversion)되는 위치에서 가능하다.

③ 준적은 만인의 일을 만인의 희망에 대표하여 자신이 헌신하고자 하는 활기를 말한다.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되게 하는 정신에서 생겨난다.

사람은 진화론처럼 어떤 시대에 돌연 출생한 것이 아니라 무궁자인 한울성이 천지만물을 통하여 사람에게 이룬 것이다. 또한 인간은 한울의 표현이기에 진화된 것도 창조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교육이란 최고 인간적인 인간 무궁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인간의 전면적인 표준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인간이 한울로서 이 무궁성을 스스로 실현하게 함에 있다. 지금까지 변화 발전되어 온 인간의 역사적 과정을 과학적 혹은 직각적으로 관찰 체득하여 역사적 전침(前尖)이 지시하는 것으로써 인간 자신의 중추사상을 삼아 그로써 실천하여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그 중추사상이란 것은 사람은 한울이요 한울(一圓)은 하나라는 인내천 사상이다. 이 세계의 궁극자는 곧 인간 안의 전체(한울)로서 이 한울을 깨달아 이와 합일하고 스스로 실현해 갈 때 인간은 보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표준을 확립하였으면 일상행위에 몰입해야 한다고 김기전은 말한다. 인간은 일상생활에 있어 모든 일을 시작하고 마칠 때 그리고 자기의 몸에 크고 적은 변화가 생길 때마다 자기의 붙잡은 중추적 사상 즉 표준을 위해 충실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조기간은 어린이들에게 요구하기를 새로운 큰 주의, 사상 없이는 그 멀고 그 험악한 길을 가기가 어렵고 또 간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이 보람 없는 헛길이 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주의와 사상이란 곧 한울의 표준으로, 자신의 생명이 있고 보람이 있는 길을 끝까지 가려면 한울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5. 홍익인간의 동귀일체 교육

수운이 동귀일체를 말한 것은 곧 인간 모두가 한울-마음의 회복을 통해 대동세계, 지상천국을 이루려는 것이다. 동귀일체는 인간 각자가 세운 한울의 대아적 표준을 실천하고 더불어 타인도 자신의 무궁성을 실현하도록 타인의 인간건축을 도와가면서 하는 것이지 자신만의 인간건축이란 따로 없다는 것이다. 의상은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곧 스스로 성불하는 법이라 했다. 그러므로 의상은 이타(利他)를 또한 자리(自利)라고 부른다. 자신과 만물의 생명적 활동을 하나로 보기에 만물일체(萬物一體)가 가능하다. 이러한 동귀일체의 대동실천이 원효가 말했던 홍익중생(弘益衆生)이요, 지눌이 말한 광도군품(廣度群品)이요, 동학에서 말하는 광제창생(廣濟蒼生)이다. 김지하의 표현으로 하면 인간 마음 안에서의 천지공심의 성취요 한 개인의 우주 사회적 공공성의 깨우침이자 그 사회적 우주적 실천의 시작을 뜻한다. 홍익하는 인간으로 살아 모든 만물과 동귀일체로 돌아가게 하여 후천개벽을 이루는 것이다. 후천개벽이란 바로 인간과 만물이 하나로 통일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흔히 인간은 강자와 약자, 우월한 자와 열등한자, 빈부, 귀천의 모든 시비와 선악과 장단, 후박의 표준으로 각자의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상대자를 설정한다. 인간은 상대적 자아를 위해 사람의 소유를 탈취하고 승자를 증오하며, 국가가 적대하여 약탈전을 벌이는 전운(戰雲)이 모두 여기서 기인하는데, 천도교는 이러한 상대적 我가 아닌 절대적 我, 세계적 我가 되어 한울공동체를 위하여 활동하고 세계를 위하여 생사(生死)를 내놓으라 한다.

천도교 사상에 있어서 자아는 흔히 교육학에서 말하는 자아실현의 개념과 틀리다. 즉 서구개념에 있어서 자아란 인간마다 고유하게 독립하여 자리 박혀있는 그 무엇으로 또는 이것을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실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천도교에 있어서 진정한 자아는 한울이요, 우주이다. 이를 천도교에서는 무아(無我)로 표현한다. 우주는 무아의 표현이요 개성의 발현이다. 그리고 인간의 무아는 무진장한 보고로서 이를 개척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인간의 구극 목적은 자신의 개성적 능력을 개척함에서 우주를 완성하여 가고 그 과정에서 부산물로 실현되는 것이 자아실현이다. 처음부터 자아라는 것이 있어서 이를 실현함이 아니라 자신의 무궁성을 개척함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우주적 표현이요 인간 개인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이 자아실현이다. 따라서 자아실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궁성을 개척하는 것, 즉 한울님을 실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마음의 한울님을 깨닫고 한울님을 공경하여 나의 한울이 대천(大天)에 융합·일치하면 우주가 즉 자신의 전체가 되어 우주가 한 몸이 되고 인간의 정신은 일체에 간섭치 않음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울님적 아(我)가 되어 중생의 생명활

등을 돕는 홍익인간의 동귀일체 교육을 제시하는 것이다. 인간이 동귀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러한 대동에 통하는 준적으로 모두가 성장할 때 가능하다. 이를 수운은 “산하대운(山河大運)이 진귀차도(盡歸此道)하리라”는 말로 표현했고 김형준은 “문화적 동귀일체의 현상”이라고 했으며 김지하는 이것이 수운이 말하는 ‘후천개벽’이라 하였다.

V. 결론

이상으로 볼 때 인간 무궁성에 기초한 동학의 교육이념은 공교육의 교육현장에 도입되어 인간형성교육에 일조를 가할 수 있고 인간이 한울님인 동시에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은 인간 개체와 생명공동체의 소중함을 인식시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하기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제시한다고 하겠다.

현대교육은 근대의 폐해성을 반성하고 탈근대적 생활조건에 눈을 돌려야 한다. 자신 스스로 자아정체성을 창조하기 위해 자아를 성찰해야 한다. 인간은 어떠한 최종적 권위도 없는 상황에서 성찰에의 전념과 불확실성 사이를 헤쳐나가야 한다. 기든스는 이를 성찰적 기획, 혹은 생활설계라 표현했다.³⁷⁾ 천도교의 교육론을 통해 볼 때, 새천년의 교육은 사회에 맹목적 순응자가 아닌 실존적 자기창조의 교육이 결합되어야 한다. 비판과 자기창조는 우주를 한몸으로 하는 생명공동체에 입각하여 자기안의 한울님을 실현하는 과정속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유심론과 유물론의 극복을 통해 이념을 통합하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을 극복하는 가운데 통일교육의 방향이 모아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에서의 동학연구를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동학이 광범한 민중 속에 급속히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주장이 당시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하였고, 이는 당시 “자본주의 침략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농민 대중의 반봉건적인 요구와 애국을 반영하는 인민들의 지향”이라 하였다.³⁸⁾ 동학은 북한에 있어 기본적으로 조국과

37 Anthony Giddens,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권기돈 역,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서울: 새물결), 1995, 321쪽.

38 원종규 외, 『갑오농민전쟁 100돌기념논문집』, (서울:집문당, 1994), 29-31쪽(이 책은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에서 낸 것을 집문당 출판사에서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를 제외하고 영인한 것이다).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려는 애국적이고 민족적인 교리로 인식되고 있다.³⁹⁾

《참고문헌》

《新人間》, 《別乾坤》, 《天道教會月報》, 《開闢》.

이돈화, 『新人哲學』, 천도교중앙종리원신도관, 1928.

김정익, 『한국의 소년운동』, 서울: 해안, 1999.

김지하, 『셋과 둘 그리고 혼돈』, 서울: 솔과학, 2000.

원종규 외, 『갑오농민전쟁100돌기념논문집』, 서울: 집문당, 1994.

임한영 역, 『민중의 신앙』,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1983.

Anthony Giddens(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권기돈 역,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서울: 새물결, 1997.

Edited by Kala Acharya • Shubhada Joshi, *Sri Aurobindo and Vedic Interpretations*, Somaiya Publications Pvt. Ltd., 1996.

John Dewey, *A Common Faith*, Yale University Press, 1934.

Sri Aurobindo, *The Upanishads*, published by Sri Aurobindo Ashram, Printed in India, 1994.

Satya P. Agarwal, *The Social Role of The Gita*, motilal Panarsidass Publishers Private Limited, Delhi, 1993.

39 위의 책, 31쪽.